

중국-타이완, 관세장벽 무너지나?

경제협력 기본협정 추진 ... 석유화학·반도체·전자 관세면세 수용할 듯

중국과 타이완이 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에 나서면서 석유화학을 비롯한 반도체 관세장벽이 철폐될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들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1월26일 양안(兩岸)간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위한 첫 공식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사실상의 FTA인 ECFA는 서로 거래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관세를 대거 낮춤으로써 무역·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타이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타이완과의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타이완의 석유화학·기계·섬유제품 관세면제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와 반도체 등 주력업종이 한국과 겹치는 타이완에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문호가 완전히 열리게 돼 국내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1월26일 하루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 협상의 밑그림을 그린 이후 조만간 추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5월 경 열릴 예정인 제5차 양안회담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7>